실리콘 3만톤 생산 대소공장 완공

한국신에츠, 100억원 투입 연간 1800억원 수입대체

한국신에츠실리콘(대표 장수웅)이 충북 음성군소재 대소공단내에 연산 3만톤 규모 실리콘공장을 완공, 오는 7일 준공식을 갖고 상업생산에 들어간다.
삼성물산과 일본 신에츠의 합작사인 한국신에츠실리콘은 총 100억원을 투입, 91년8월부터 공장건설에 들어가 지난 5월 기계적 완공을 했다.
이에따라 실리콘류 제품의 수입대체 효과는 연간 18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되는 대소공장은 실란트고무를 비롯한 실리콘 실란트, 전기·전자용 RTV, 소포제, 이형제, 건축용 발수제 등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공장은 구로동소재 공장을 생산규모상 100% 이상 증설, 이전한 것이다.
한편, 한국신에츠실리콘은 이번 공장준공을 계기로 R&D센타를 운영, 최종제품 다양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1992/7/1>